

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계속 가나안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한다. 처음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살 생각을 한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울무와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까지 한 것이다. 그 땅에서 8년 동안을 지배당했다고 했다(8절). **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?** 먼저는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 크다. 올바른 언약과 믿음을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다. 하나님이 누군지,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다.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.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. **왜 허락하셨을까?**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. 분명히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. 1-2절에 보면 두가지 목적을 위해 그 땅에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두었다고 했다. **첫째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.** 삿2:21-13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. 그 부모 세대들이 언약을 잡고,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대로 그 자손들도 그렇게 따라 오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고 했다.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시험하신다.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. 문제와 위기가 올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. **둘째는 전쟁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속에서 승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.** 사실은 부모 세대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. 택함 받은 백성들의 후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. 그들이 못 깨달아 세상에서 고생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.

1.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.
  -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인생을 속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단을 지옥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?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유혹을 받고, 실패하고,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?
  - 1) **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온다.**
    -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, 그 배후의 사단을 영원히 지옥에 가두신다고 했다(계20:13-14).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다.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 있다(계22:5).
  - 2) **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.**
    -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영원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알고,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절망, 고통,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긴 자의 삶을 살다가 오라는 것이다.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(갈2:20). 그때는 다른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.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(롬8:28). 그것을 통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,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살리다 오라는 것이다(행1:8).
  - 3) **이 훈련과 체험이 없으면 그냥 사는 정도 아니다. 계속 세상에 속고, 고통을 당하며 살 수 밖에 없다.**
    -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이 가슴 아픈 삶을 산 것이다. 부모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오히려 문제 속으로 보내어 훈련시킨다. 큰 인물로 키우는 것이다. 하나님도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풀어헤쳐 자기 날개로 인도하는 것처럼 훈련하신다(신32:11-12)
2.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.
  - 악한 자들만 남겨 있는 것이 아니다. 악한 자들은 악한 때를 위해 남아 있다고 했다(잠언16:4, 벰후2:9)
  - 1) **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. 그들이 렘넌트이다(롬11:5)**
    - ① **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짓도록 노아를 그렇게 택하셨다(창6:8).**
      -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, 노아는 그 시대의 전도자로 산 것이다(히11:7, 벰후2:5).
    - ② **우상 숭배가 강한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에 가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다(창12:1-3),**
    - ③ **이스라엘이 멸망 당할 위기에 에스터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, 부림절을 만든 이유도 그것이다(에9:24-26)**
      -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제비 뽑아 날을 정했는데, 그 날에 그가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다. 마귀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고,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, 그 마귀가 끝난 날이 십자가 사건이다.
  - 2) **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다. 거기에 네가지 축복과 미션을 주셨다.**
    -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 안에 “거룩한 씨”(사6:13),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이다.
      - ① **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.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.**
      - ② **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(계17:14).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.**
      - ③ **고통과 재앙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영적 흐름을 바꾼다(막16:17-18).**
        -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. 세상과 마귀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한다.
      - ④ **그렇게 오직 그리스도,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씨앗 후대들이 일어나야 한다. 그들이 남기는 자들이다.**
        - 우리가 전도와 선교, 후대 키우는 렘넌트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것이다. 갈렙이 축복된 이유는 그가 이런 후대를 세운 것이다. 그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 웃니엘이다.
  - 3.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남은 자 웃니엘은 어떤 사람인가?
    - 1)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모든 사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예언이고, 예표이다.
      - ① **웃니엘이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이다(9절).**
        -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다.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다(눅2:10) 제사장, 왕,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하고, 사단의 권세를 깨고,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다.
      - ② **웃니엘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면서 메소포타미나 왕과 싸웠는데, 그가 이겼다고 했다(10절)**
        - 승리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.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영적 승리를 누리라는 것이다.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(요일4:4). 승리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증거로 바뀐다(고전15:57-58).
      - ③ **이 웃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, 40년간 평안이 왔다고 했다(11절)**
        -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(눅1:33).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(롬14:17) 분쟁과 갈등과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, 마음, 생각, 몸,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.
    - 2) **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때에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예표이다.**
      -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교회나 겨우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,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.

**결론-**악한 자들도 악한 때를 위해 남겨졌다. 우리는 악한 때에 세상에 답을 주고, 승리할 자로 남겨진 자들이다.